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16(금) ~ 2025.5.22(목)

제공일시 2025 5 30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16(금) ~ 2025.5.22(목)

제공일시 2025 5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탈원전' 고집 꺾은 독일... EU 원전 활성화 빨라진다

-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독일이 입장을 바꾸면서 유럽연합(EU)의 원전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데 따른 것임
-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독일 정부가 EU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 FT는 독일의 이번 결정이 "EU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요 걸림돌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을 되살리려는 메르츠 총리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짚음

[\(서울경제 2025.5.19\)](#)

2. EU-영국, ETS 상호 연계 추진 합의

- EU와 영국이 자국 탄소배출권(ETS) 제도를 연계하기로 공식 합의함. 이번 합의는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EU-영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채택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 전문가들은 양측의 기후·환경 정책이 사실상 공동 대응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이번 ETS 연계는 전력, 산업, 해운, 항공 등 고배출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석유·가스·탄소포집(CCS) 등 고탄소 산업군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영국은 2028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도 ETS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5.21\)](#)

3. 美, '脫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박차... 브라질 주목

- 미국 등이 브라질에서 대체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캐나다 광산기업 '아클라라 리소시스(Aclara Resources)'는 브라질 노바로마 인근에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이 광물들의 행선지는 다름 아닌 미국임. 조만간 미국 내 신규 정제공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공장 부지는 올 8월 확정될 예정임
- 아클라라는 독일 자석 제조업체 'VAC'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VAC는 미 국방부의 94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받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자석 공장을 짓고 있음

[\(이데일리 2025.5.19\)](#)

국내 정책

1. 중기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오는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함
-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임
-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임

[\(경북일보 2025.5.21\)](#)

2. 정부, 내년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시설 지원, 온실가스 감축"

- 정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관련 공공 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친환경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민간 주도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과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함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6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과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등을 논의함

[\(디지털타임스 2025.5.20\)](#)

3. 지속가능항공유 로드맵에 공급의무 더해 급유의무 포함 검토

- 정부가 오는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SAF) 1% 의무화를 발표한 가운데, 오는 9월 예정인 로드맵에 항공사에도 급유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짐
- 국토교통부 이종진 사무관은 15일 2025 바이오연료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석해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SAF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함
- 이 사무관은 오는 2030년 SAF 의무혼합비율을 국제사회 합의사항과 정유사 공급역량, 항공사 비용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SAF 전용시설 구축, 운영,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SAF 중장기 목표가 필요하다는 정유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2035년 의무혼합 비율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에너지플랫폼뉴스 2025.5.15\)](#)

글로벌 기업

1. 베트남 국영기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협력 합의

- 베트남이 미국과 2차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이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2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페트로베트남과 웨스팅하우스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술 이전, 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함. 베트남은 일본, 한국, 프랑스와도 원전 관련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임

[\(연합뉴스 2025.5.21\)](#)

2. 포드, SK온 합작사에 닛산 배터리 생산 허용

- 미국 포드 자동차가 SK온과 합작, 설립한 배터리 공장에서 경쟁사인 닛산의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전해짐.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는 미국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 중 유휴 생산시설에서 닛산의 배터리를 제조하도록 했다고 보도함

- 저널은 이번 닛산 배터리 생산은 EV 수요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함

[\(파이낸셜뉴스 2025.5.21\)](#)

3. MS, 탄소 제거 1800만톤 구매... 자발적 시장 최대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1800만톤을 제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지금까지 체결된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 계약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됨

-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MS가 루비콘카본(Rubicon Carbon)과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함. 루비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전 세계 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식생복원(Revegetation)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탄소 제거 크레딧을 MS에 공급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5.5.16\)](#)

4. “10년간 9.6조원 투자”... 샤오미, 반도체 승부수

-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독자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움.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10년간 최소 500억위안(약 9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기술 자립에 본격 시동을 걸

- 19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위챗을 통해, 오는 22일 개최할 자체 칩 ‘쉬안제O1(Xring O1)’ 발표 소식을 전하며 반도체 부문 장기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함

[\(서울경제 2025.5.19\)](#)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참여한 베트남 첫 LNG 가스발전소, 상업운전 앞두고 24시간 최대출력 운전 성공

- 삼성물산이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최근 완공한 첫 LNG가스발전소 '년짱 3 발전소'가 다음달 상업운전을 앞두고 최대출력으로 24시간 연속 기저부하 운전에 성공함
- 1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베트남 첫 LNG 가스발전소인 년짱 3 발전소가 지난 17일 최대 출력 812MW로 24시간 연속 기저 부하 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밝힘
-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이 EPC 패키지의 주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음. 삼성물산은 현재 발전소 내부 세척과 정밀 기술 조정(Tun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시험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임

[\(파이낸셜뉴스 2025.5.19\)](#)

2. SK오션플랜트, 美 함정 MRO 사업 속도... 글로벌 조선해양기업 '레벨업'

-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함정 MRO(유지, 보수, 정비) 사업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임
- SK오션플랜트는 군수지원함 MRO 사업 입찰에 올해 말부터 참여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핵심 방산기업들과 협력도 확대함

[\(페로타임즈 2025.5.16\)](#)

3. 효성중공업, 바레인 변압기 수주 '도전장'... 히타치와 입찰 경쟁

- 효성중공업이 바레인에서 변압기 19대 공급 사업을 두고 스위스 업체와 경쟁하고 있음
- 21일 바레인 수전력청(EWA)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66kV 변압기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함. 변압기 19대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가로, 2174만9456 바레인디나르(BHD·약 800억원)를 제시함. 이는 경쟁사인 스위스 히타치 에너지(947만6373BHD·약 350억원) 등보다 높음

[\(더구루 2025.5.21\)](#)

4.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ESS 생산 연말 가동... 유럽 시장 공략 속도

-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생산을 시작함.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안에서 셀부터 시스템까지 모두 생산 가능한 유일한 ESS 제조업체가 됨
- 14일(현지시각) 에너지 전문 매체 리뉴어블스나우의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법인은 연말까지 브로츠와프 공장에 ESS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5.15\)](#)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5.16(금) ~ 2025.5.22(목)

제공일시 2025 5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미국,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수입 장비에 최대 3521% 관세 최종 결정

-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 및 모듈이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등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모두 보호무역 조치로, 특정 국가의 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미국 상무부는 1년 넘게 진행한 불공정 무역조사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은 태양광 장비가 저가로 미국 시장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음. 이는 자국 기업들이 정상적인 원가로는 경쟁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며 시장을 잠식했다고 판단했음

-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확정한 관세율을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최대 130억달러(약 18조4200억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본격 부과할 예정임

- 국가별 평균 관세율은 캄보디아 최대 3521%, 베트남 396%, 태국 375%, 말레이시아 34% 수준으로 확정됐음. 특히, 캄보디아는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됐음 베트남 진코솔라(JinkoSolar)는 약 245%, 트리나솔라(Trina Solar)는 베트남산에 200% 이상, 태국산에 대해 375%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JA Solar의 베트남산 모듈에도 약 120%가 부과될 예정임

- 미국 제조업계는 중국계 기업들이 무역 제재를 피해 동남아 생산거점을 통해 우회 수출하고 있으며, 기존 관세를 회피하고 미국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음. 실제 미국의 연간 태양광 장비 수입 중 80%가 이들 4개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2023년 수입 규모는 129억 달러(약 18조3200억원)에 달함

-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Hanwha Q Cells), 퍼스트솔라(First Solar Inc.)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1년 전 제소한 사건의 결론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수입 규제로 평가됨

- 제조업계는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태양광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음.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대부분이 동남아 수입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USITC의 이번 판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태양광 제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제조 확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과 미 의회의 정책 지원 축소 움직임 등으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음.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프로젝트 일정 및 원가 구조에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미국 태양광 제조연합(SEMA)의 마이크 카 전무는 “패널 가격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극히 일부”라며 “노동력 비용과 전력망 연계 지연이 더 큰 변수”라고 반박했음. 그는 이어 “미국 내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 역량이 2026년까지 전체 수요를 충족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5.22\)](#)